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

-중학교 영어교과서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09년 7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하 연 주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

-중학교 영어교과서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09년 7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하 연 주

하연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7월 31일



주심 언어학 박사 김은일 (인)

위원 영어학 박사 전춘배 (인)

위원 문학 박사 윤희수 (인)

목 차

Abstract	v
제 1장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2
제 2장 이론적 배경	4
2.1 선행연구	4
2.2 부가의문문의 형태	6
2.3 부가의문문의 기능	9
제 3장 중학교 영어교과서 분석 및 논의	14
3.1 연구대상 및 방법	14
3.2 중학교 영어교과서 분석	15
제 4장 부가의문문 이해도 분석	26
4.1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 분석	26

4.2 설문지 결과	30
4.2.1 주어의 인칭수	30
4.2.2 주어의 성	32
4.2.3 동사	35
4.2.4 명령문 및 권유문	40
4.2.5 감탄문	44
4.2.6 보문절	45
4.2.7 동일극	48
제 5장 결론 및 제언	51
참 고 문 헌	55
교과서 목록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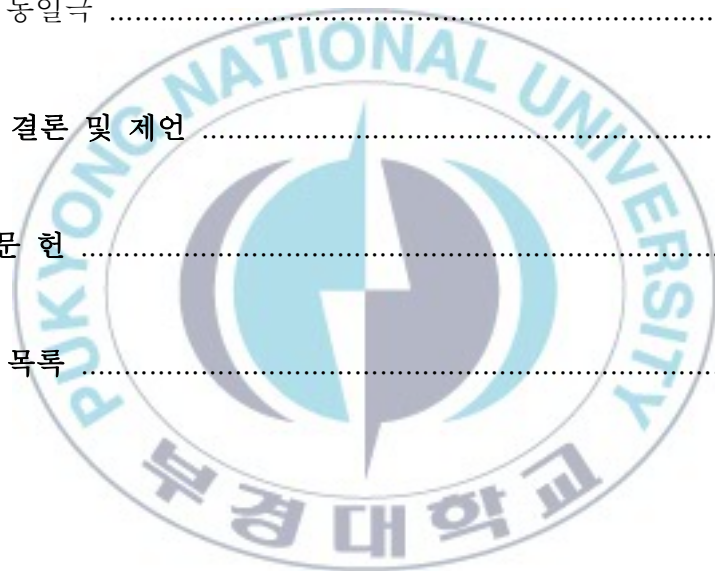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1> 부가의문문에 대한 Cattell의 의미분석과 사용법	10
<표 2> 학년별 부가의문문 분포	15
<표 3> 극(polarity)에 따른 부가의문문 분포	16
<표 4> 극(polarity)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긍정/부정 분포	17
<표 5> 극(polarity)에 따른 학년별 부가의문문 분포	17
<표 6> 동사의 형태별 부가의문문 분포	19
<표 7> 조동사의 종류별 부가의문문 분포	19
<표 8> 동사의 시제별 부가의문문 분포	20
<표 9> 진술문의 형태별 부가의문문 분포	21
<표 10> 인칭별 부가의문문 분포	21
<표 11> 주어의 수에 관한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31
<표 12> 주어의 성(gender)에 관한 대명사 사용분포	33
<표 13> 상관접속사가 주어인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34
<표 14> 1인칭 동사유형 조사결과	36
<표 15> 일반동사 have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37
<표 16> 조동사 have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37
<표 17> 조동사 may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38
<표 18> 조동사 ought to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39
<표 19> 긍정명령문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42
<표 20> 부정명령문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42
<표 21> 권유문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44
<표 22> 감탄문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45

<표 23> 주절(긍정)+종속절(부정)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47
<표 24> 주절(부정)+종속절(긍정)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48



An Analysis of Tag Question in English Textbook:

With Special Reference

to Middle School English and Survey

Ha, Yeon-j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and frequency distribution of tag question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o check how properly future-English teachers use them and to help them learn and teach techniques of tag questions in English.

For this purpose, first, 30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and variety form of tag questions. The detailed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paragraph. From 30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171 tag question sentences were found. Among them 91% of all the sentences were contrasting polarity tag questions and only 9% matching polarity, which were all imperative sentences. It was also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sentences were used with auxiliary verbs 57%. With the tense, most of the sentences, 85% were present tense, followed by past tense 15%. 91%, almost all sentences were predicate, and the rest 9% were imperative sentences. There were no exclamatory sentences, compound sentences either. The most frequently used subjects of tag questions were 'you', 52% and there occurred no 'I' .

With the results above,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t many sentences with tag questions in the textbooks and the focus was on the simple grammatical form of tag questions. Moreover, the tag questions were not of various types and occurred in the practice drill or short conversations, not in the full context and all tag questions were practiced only by the normative grammar.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1 prospective-English teachers,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in a graduate school to investigate their knowledge and use of tag questions. The findings showed that many of them didn't fully understand the tag questions and usually used

them according to the normative grammar.

The study, therefore, suggests that English textbooks should contain more various and practical types of tag questions in the full context to help Korean students learn and use them in real communication. Furthermore, Korean English teachers need to make an effort to acquire the correct knowledge of tag questions to teach proper use of tag questions in real life.



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여전히 문장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부가의문문 지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중·고등학교 경험으로 미루어본 부가의문문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의된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부가의문문은 화자의 진술에 대한 상대의 확인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형식적 측면에서 부가의문문은 진술문이 긍정이면 부가문은 부정, 진술문이 부정이면 부가문은 긍정으로 한다. 하지만 학교 교과서를 벗어나 영화나 소설 등과 같은 참자료(authentic materials)를 접하다 보면 미처 학습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부가의문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부가의문문에 관한 지식으로는 이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교사들이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부가의문문 지도를 계속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부가의문문은 그저 앞의 문장형태에 따라 부가문을 채워 넣는 단순한 활동에 불과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화 속에서 부가의문문이 가지는 진정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낄것으로 고려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부가의문문이 어

떻게 분포되어있는가를 파악해보고 예비 영어교사들을 중심으로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해 보려는 것이다.

부가의문문은 주로 중학교 저학년에 처음 학습되며 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표현임으로 대화문이 많이 제시되는 중학교 교과서가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분포를 살펴보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교과서에 나타나는 부가의문문은 다양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학교에서 학습되는 부가의문문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교사들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또한 중등 예비 영어교사들이 부가의문문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교육현장에서의 바람직한 지도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부가의문문의 정의 및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분포를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논한다. 제 4장은 설문지를 통해 예비 영어교사들의 부가의문문 이해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서 요약과 정리를 한다.

한편,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부가의문문의 음조는 상승(rising)음조와 하강(falling)음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부가의문문의 전형적인 하강음조를 전제로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둘째, 교과서 분석 범위는 중학교 교과서로 한정했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제외되었다.

셋째, 설문대상은 예비 영어교사들로서 특정대학 교육대학원생들로 모든 예비교사의 자질을 대표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2장에서는 본연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가의문문의 정의와 형태, 기능에 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파악한다.

2.1 선행연구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는 여러 문법이론에 입각하여 통사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 절에서는 부가의문문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희백(1990)은 영어 부가의문문의 기능과 응답에 관한 연구에서 구어체 영어에 주로 사용되는 부가의문문의 기능에 관한 분석을 종합하여 부가의문문의 주된 기능이 인지과정의 확인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그리고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실제 사용한 언어자료를 담화적 관점에서 부가의문문의 응답을 분석·기술함으로써 부가의문문의 기능에 관련되는 언어적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자 했다. 그는 부가의문문의 주요기능을 대립극과, 동일극으로 나누고 부가의문문의 응답은 제시된 진술부분에 대한 추가 혹은 정정사항이 없거나 응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부가의문문의 응답은 선택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여도수(1994)는 부가의문문의 유형을 단문과 중문형태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단문구조에서는 한 개의 문이 기저구조가 되어 여러 변형을 거쳐 부가의문문을 생성시키나, 중문구조에서는 독립된 두 개의 문인 진술문과 부가문이 완전한 문으로부터 도출되어 진술문과 일치하는 동일 동사구가 부가문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박병수(1974)는 부가의문문을 하나의 문장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intra-sentential problem)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문장간의 문제 (inter-sentential problem)로 인식하려는 시도를 바탕으로 부가의문문을 연구한다. 그는 부가의문문에 대한 전통적 통사적 이론을 거부하고 부가의문문을 통사적으로 독립된 두개의 문장이 어떤 의미적 제약 밑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론을 펼친다.

이상 3편의 논문은 모두 부가의문문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었으며 부가의문문의 기능적 내용적 분석과 실제대화 속에서의 부가의문문의 기능과 그에 관한 응답 등 다양한 부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부가의문문 연구가 학습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까지 활용되려면 부가의문문이 실제 사용된 텍스트 분석, 특히 부가의문문 지도에 사용되는 교과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듯 많은 부가의문문 연구 중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가의문문을 연구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교과서분석에 관한 논문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예비교사들이 부가의문문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알아 볼 것이다.

2.2 부가의문문의 형태

부가의문문(tag question)은 대화에 자주 사용되는 형태이다. 이는 대화상의 의문문이라고 불리워지며 질문을 하기보다는 제안, 희망, 공포 등에 대한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의문문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부가의문문은 대화중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영어 부가의문문은 다음과 같이 진술문(host clause)에 짧은 의문문(tag)이 더해지는 형태를 취하며 일반적으로 긍정의 진술문 뒤에는 부정의 tag가, 부정의 진술문 뒤에는 긍정의 tag가 따라온다. 문장 (1a)처럼 화자가 청자로부터 긍정의 응답을 기대하면 긍정의 진술에 부정의 tag를 사용하고 (1b)처럼 청자에게 부정의 응답을 기대하면 부정의 진술에 긍정의 tag를 사용한다.

(1) a. You met Alice yesterday, didn't you?

b. You didn't meet Alice yesterday, did you?

Cattell(1973)은 부가의문문의 의미적인 면을 고찰하면서 부가의문문을 독립된 두 개의 절이 의미적 제약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가의문문을 크게 동일극과 대립극으로 나누어 의미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는 부가의문문 내에서 진술문을 주절이라고 하고

주절과 tag가 같은 극(polarity)을 이룰 때, 즉 주절과 tag가 동시에 긍정이거나 동시에 부정일 때는 ‘동일극’ (matching polarity)이라고 한다. 반대로 주절과 tag가 서로 다른 극을 이룰 때는 ‘대립극’ (contrasting polarity)이라고 정의하였다.

- (2) a. John has left, hasn't he?
- b. John hasn't left, has he?
- c. John has left, has he?

Lakoff(1969)는 (2a)나 (2b)와 같은 대립극 부가의문문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2c)와 같은 동일극 부가의문문은 가끔 사용되기는 하지만 반어적이거나 상당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만 간단히 소개하였다.

동일극의 부가의문문은 음조가 빈정거림이나 의심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그러한 부가의문문들은 흔히 앞에 Oh나 So가 와서 이미 말한 부분을 추론하거나 기억함으로써 화자가 결론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부가의문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진술문에 부정첨사가 들어있을 경우 tag는 부정첨사가 없다. 하지만 진술문에 부정첨사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tag는 부정첨사를 가진다.

- (3) a. She is a teacher, isn't she?
- b. She isn't a teacher, is she?

부가의문문은 ‘진술에 대한 동의의 기대’이며 Quirk, et al.(1985)은 tag가 붙은 진술이 긍정이나, 부정이나 또는 tag가 상승, 하강의 음조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부가의문문을 분류하였다. 상승 음조의 부가의문문인 경우에는 긍정 진술문과 부정 진술문에 각각 중립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즉 실제로 질문의 의미를 가지는 두 형태이지만, 하강 음조의 부가의문문은 긍정 진술문에는 긍정의 기대, 부정 진술문에는 부정의 기대를 갖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4) a. 긍정 + 부정 (Rising tone)

He likes his job, doesn't he?

b. 부정 + 긍정 (Rising tone)

He doesn't like his job, does he?

c. 긍정 + 부정 (Falling tone)

He likes his job, doesn't he?

d. 부정 + 긍정 (Falling tone)

He doesn't like his job, does he?

위에서 (4a)는 I assume he likes his job, am I right?의 의미이며 (4b)는 I assume he doesn't like his job, am I right?를 의미한다. (4a)는 긍정의 가정에서 중립적 기대를 할 수 있고, (4b)는 부정의 가정에서 중립적 기대를 할 수 있다. 즉 (4a), (4b)는 긍정 혹은 부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승 음조의 부가의문문은 ‘불확실성’ 이나 ‘의문의 확인’ 을 하고자 할 때 사용

한다. 하지만 (4c) (4d)와 같은 하강 음조의 부가의문문은 화자가 생각하는 바에 대한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문문은 아니다.

이것들 외에도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진술문이나 부가문이 모두 긍정이거나 부정인 부가의문문도 있다.

(5) a. So he likes pizza, does he? (Rising tone)

b. So he doesn't like pizza, doesn't he? (Rising tone)

(5)의 경우는 언제나 상승음조이며 상대방이 이미 했던 말을 떠올리거나 추정해서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문장 앞에 so나 oh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4가지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두가지를 더할 수 있다.

e. 긍정 + 긍정 (Rising tone)

So he likes his job, does he?

f. 부정 + 부정 (Rising tone)

So he doesn't like his job, doesn't he?

(4e), (4f)와 같은 동일극에 대해서는 다음 2.4 부가의문문의 기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2.3 부가의문문의 기능

이상에서 부가의문문의 정의와 부가의문문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언어에 있어서 형태의 차이는 곧 의미의 차이를 뜻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따른 의미들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의 표 1은 부가의문문에 대한 Cattell(1973)의 의미 분석과 사용법을 도표화 한 것이다. 여기서 P는 Positive를 N은 Negative를 의미한다.

〈표1〉 부가의문문에 대한 Cattell의 의미분석과 사용법

유형	극		진술문의 의미	용법
	진술문	부가문		
대립극	P	N	화자의 주장	동의 요청의 용법.
	N	P		
동일극	P	P	화자의 주장이 아님.	반어적 용법 반복적 용법
	N	N		

〈표1〉에 나타난 요청의 용법이란 화자가 자신의 진술문에 대해 청자로부터 그 진술문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을 구할 때 쓰는 것이며, 반어적 용법은 화자가 실제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빈정대거나 혹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의아스러움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반복적 용법이란 상대의 주장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 등과 같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을 되풀이 하여 그의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부가의문문이다.

이 외에도 부가의문문은 대화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데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거나 이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청자가 자신의 말을 집중하며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으로도 쓰인다.

부가의문문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6) a. The movie is interesting, is it?

b. The movie is interesting, isn't it?

(6a)는 화자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을 경우, 혹은 보았더라도 그 내용을 잊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부가의문문이다. 이렇게 동일극 부가의문문을 쓸 경우 화자는 자신의 주장을 말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자 하기 보다는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6b)와 같은 대립극 부가의문문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에 대한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동일극 부가의문문은 다시 반어적 용법과 반복적 용법 두가지 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

(7) The party was nice, is it?

부가의문문 (7)을 사용한 화자는 그 파티가 전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청자나 혹은 다른 이들은 파티가 즐거웠다고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신도 단지 반어적으로 표현한테 불과하다.

(8) A: The party wasn't nice, isn't it?

B: The party wasn't nice, isn't it?

A: Right, That's what I mean.

B: I'm not sure but perhaps you are right.

(8)의 동일극 부가의문문에서 B는 A가 한말을 단순히 반복함으로써 A의 주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B는 The party wasn't nice라는 A의 주장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려는 의견 없이 단순히 A의 말을 되풀이한데 불과한 반복적 용법이다.

다음은 의문문 부가의문문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9) * a. Did you win the game, didn't you?

b. Did you win the game, did you?

* c. Didn't you win the game, didn't you?

의문문은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 판단을 제안하는 문장의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동일극 부가의문문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9a)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대립극 부가의문문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9c)의 문장은 동일극 부가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다. (9b)와 (9c)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 Cattell은 부정의 동일극 부가의문문이 긍정의 동일극 부가의문문보다 훨씬 더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Cattell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도 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기능적 설명이 가능하다.

- (10) * a. I'm sure that's right, is it?
b. I'm sure that's right, isn't it?

(10a)는 동일극 부가의문문이므로 앞서 언급한 대로 반어적 용법이나 반복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이지만 (10a)에서 I'm sure은 화자의 강한 확신과 주장을 나타내므로 반어적 용법이나 반복적 용법으로 쓰일 수 없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에 해당한다. 반면 (10b)는 대립극 부가의문문이므로 진술문이 화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동의 요청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지금까지 제 2장에서는 부가의문문의 정의와 형태 그리고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제 3장에서는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능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분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제 3장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및 논의

3.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Middle School English 1, 2, 3의 모든 단원에 제시된 부가의문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부가의문문이 비교적 기초적인 문법내용에 해당하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사용빈도수가 적은 관계로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최초의 부가의문문은 1학년 과정부터 도입되며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학년은 교과서마다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각 학년별 교과서 10종을 선정해 총 30권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교과서의 각 단원은 크게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가의문문은 주로 대화체에서 제시되는 특성상 서술문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의 본문보다는 말하기, 쓰기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기능 학습활동에 주로 나타나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분석 기준은 대립극과 동일극, 긍정과 부정, 동사의 종류별 사용빈도, 시제별 사용빈도, 문장의 유형, 대답방법 등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부가의문문 그 자체에

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가의문문이 제시된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는지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는지를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3.2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중학교 영어교과서 각 학년별 10종으로 총 30권의 영어교과서에서 총 171개의 부가의문문을 수집했다. 부가의문문은 주로 대화에서 사용되는 특성상 대부분은 Dialogue나 Speaking, Writing Practice와 같은 의사소통적 기능 학습에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발음교육 부분에서 연음, 억양과 관련된 학습에서 제시되었으나 본문에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표 2>는 학년별 부가의문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학년별 부가의문문 분포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계	85 (50%)	56 (33%)	30 (17%)	171 (100%)

<표2>에서 나타나듯이 중학교 저학년일수록 부가의문문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1학년이 전체의 50%, 2학년이 33%, 3학년이 17%의 빈도를 보였다. 이는 부가의문문이 비교적 간단한 문법으로 구어체에서 쉽게 사용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교과서 내에서 부가의문문의 제시는 골고루 분포되어있기 보다는 특정 단원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았다. 주로 부가의문문이 소개되는 단원에서 Drill이나 Exercise를 통한 부가의문문의 형태를 반복 학습을 유도하는 식이었다.

극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극(polarity)에 따른 부가의문문 분포

극	대립극	동일극	계
계	156 (91%)	15 (9%)	171 (100%)

<표 3>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 부가의문문중 대립극이 전체의 91%로 동일극에 비해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다음 문장 (11)은 교과서에 나타난 대립극 부가의문문이며 문장 (12)는 동일극 부가의문문의 형태이다.

(11) You are a teacher, aren't you?

(12) A: Wash the dishes before I come home, will you?

B: Okay, I will.

<표 4>는 대립극, 동일극의 부가의문문에 나타난 긍정과 부정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4〉 극(polarity)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긍정/부정 분포

극 \ 긍정/부정	긍정	부정	계
대립극	36 (23%)	120 (77%)	156 (100%)
동일극	15 (100%)	0 (0%)	15 (100%)

대립극 내에서는 부정의 부가의문문(negative tag)이 77%로 대립극의 3/4이상이 사용되었고, 동일극의 경우에는 긍정의 부가의문문만 사용되었으며 부정의 부가의문문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극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분포를 종합해보면 긍정의 진술문에 부정의 tag를 가진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의 (13)은 대립극 긍정의 예이며 (14)는 대립극 부정, (15)는 동일극 긍정의 예이다.

(13) He doesn't like math, does he?

(14) You are Minsu, aren't you?

(15) Let me use the phone, would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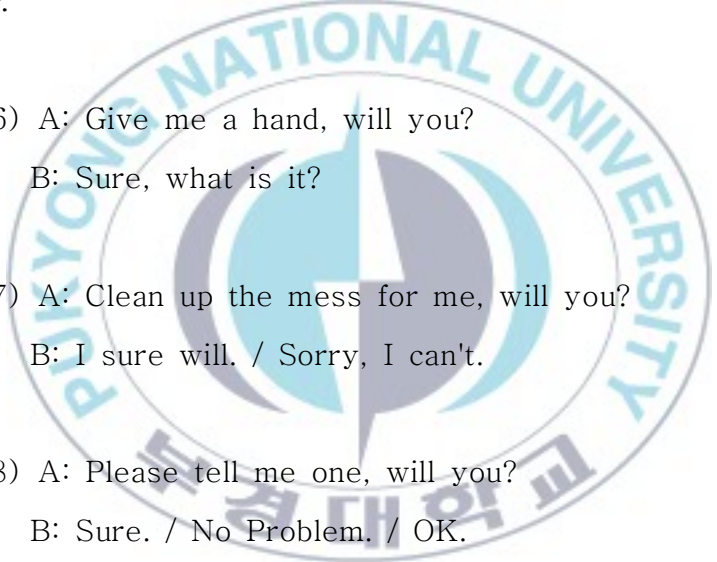
〈표 5〉는 〈표 3〉에서 나타난 결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파악해 본 것이다.

〈표 5〉 극(polarity)에 따른 학년별 부가의문문 분포

극 \ 학년	1	2	3	계
대립극	85 (54%)	43 (28%)	28 (18%)	156 (100%)
동일극	0 (0%)	13 (87%)	2 (13%)	15 (100%)

극에 따라 학년별로 살펴보면 대립극은 1학년에 절반 이상의 빈도를 보였고 저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동일극은 1학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2학년에서 무려 87%나 나타났다. 그런데 제시된 동일극의 부가의문문은 모두 명령문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2학년 과정에서 명령문이 소개되므로 동일극의 부가의문문이 2학년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동일극 부가의문문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 (16) A: Give me a hand, will you?
B: Sure, what is it?
- (17) A: Clean up the mess for me, will you?
B: I sure will. / Sorry, I can't.
- (18) A: Please tell me one, will you?
B: Sure. / No Problem. / OK.

(16)–(18)의 동일 부가의문문은 다음의 몇가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일극 부가의문문이 사용된 문장은 모두 명령문 혹은 요청문이다. 둘째, 동일극 부가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이 긍정 동의이다. 셋째, 부가의문문 속 tag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will you를 사용한다. 이는 앞서 제시된 부가의문문의 다양한 기능 중 극히 일부만이 중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서 이론에서 제시된 동일극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나타난 극히 제한된 예를 접한 학생들은 마치 동일극 부가의문문은 명령문이나 요청문에서만 사용된다는 잘못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아래 <표 6>은 부가의문문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표 6> 동사의 형태별 부가의문문 분포

동사의 종류	조 동 사	be 동사	have 동사	계
계	99 (58%)	70 (41%)	2 (1%)	171(100%)

이 표에 의하면 부가의문문에 사용된 동사는 조동사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be 동사 41%, 현재완료 have 동사는 1%이다.

- (19) a. You can play the piano, can't you?
 b. she is your sister, isn't she?
 c. You've been there before, have you?

그리고 <표 7>은 부가의문문에 사용된 조동사의 유형별로 그 분포를 파악한 것이다.

<표 7> 조동사의 종류별 부가의문문 분포

조동사	do	will	can	계
계	79 (80%)	15 (15%)	5 (5%)	99 (100%)

부가의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조동사는 do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조동사는 will 15%, can 5%였으며 must나 should, may등과 같은 조동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동사의 시제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분포도를 보여준다.

<표 8> 동사의 시제별 부가의문문 분포

시제	과거	현재	계
계	25 (15%)	146 (85%)	171 (100%)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의문문에서 사용된 시제는 현재시제가 85%로 대부분이었고 과거의 사용은 15%이다. 이는 부가의문문이 주로 대화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리고 1학년 교과서에서는 경우 현재시제중 will의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1학년 교과서에 동일급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점과 맥락을 함께 한다. 이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부가의문문의 현재시제 중 조동사 will의 사용은 대부분이 명령문이나 요청문에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9>는 진술문의 유형별 부가의문문의 분포를 파악한 것이다.

〈표 9〉 진술문의 유형별 부가의문문 분포

진술문의 유형	계
평서문	156(91%)
명령문	15(9%)
감탄문	0(0%)
보문	0(0%)
계	171(100%)

중학교 영어교과서에는 평서문이 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감탄문과 보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명령문은 전체 부가의문문중 9%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제시되었다. 여기서도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은 매우 한정적인 형태만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의문문에 나타난 주어의 인칭 형태별 부가의문문일때 분포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인칭별 부가의문문 분포

인칭	I	We	You	She/ He/ It	They	There	주어 생략	합
계	0 (0%)	5 (3%)	89 (52%)	61 (36%)	14 (8%)	1 (0.5%)	1 (0.5%)	171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에서는 2인칭주어가 5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부가의문문이 주로 대화문에서 나타나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대화문은 2인칭과의 대화라는 특성

을 가지기 때문이며 대화시 자신에 대한 언급보다는 대화 상대나 혹은 제 3자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의문문은 2, 3인칭에 전형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이 3인칭 단수주어로 36%를 차지하였으며 3인칭단수 주어 중에서도 특히나 It의 사용은 전체 61건 중 46건, 즉 전체 3인칭 단수 주어의 75%로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3인칭복수 They가 주어로 나타난 경우는 8%였다. 그리고 1인칭 주어의 사용이 가장 적었으며 특히 I를 주어로 사용한 부가의문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도 no one, anyone, every one 등과 같이 인칭의 수가 문법적으로는 단수이지만 문맥에 따라 복수로 해석 가능한 경우 역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There을 주어로 한 경우와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각각 1건씩 있었다.

그 외 구어체(spoken)와 문어체(written)에 따라 부가의문문이 나타나는 빈도를 살펴보았다. 앞서 부가의문문이 주로 대화문에 나타난다는 예상대로 부가의문문은 거의 모든 경우 대화체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부가의문문이 사용된 대부분의 대화문은 맥락 속에서 제시되었기 보다는 단순히 (20)처럼 단순한 질문, 답변 형태로 제시 되었다.

(20) A: You like pizza, don't you?

B: Yeah, I love it.

그리고 문어체에서 부가문이 제시된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21) Amazing, isn't it?

(22) Many of you have difficulty solving your own problem, don't you?

(21)은 세계의 미스터리에 관해 다루는 본문 내용 중에 나타난 문장으로 소개된 내용의 놀라움을 강조하고자 사용한 부가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진술문의 주어와 동사 It's가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22)는 라디오 DJ가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이다. 이는 청취자로부터 즉각적인 답변이나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문어체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문장으로 미루어 보아 본문에 나타나는 부가의문문은 상대의 답변을 기대하거나 반응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자로부터 화자가 한 말에 대한 참, 거짓을 묻기보다는 주로 진술문에 대한 강조나, 반복의 기능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부가의문문은 주로 dialogue나 drill, practice와 같은 의사소통적 학습 부분에서 제시되었다. 간혹 본문에서 제시되는 경우도 대화문 혹은 서신 등과 같은 대화체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②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 대부분이 대립극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립극 부가의문문 중에서도 긍정의 서술

문에 부정의 tag가 붙는 형태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답의 형태도 긍정 동의 대답형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③ 전체 중 9%를 차지하는 동일극 부가의문문은 그나마 모두가 명령문 형태였다.

④ 부가의문문에 사용된 동사는 be동사와 조동사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조동사 중에서도 do동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can, will등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조동사 may, must, ought to, should 등의 부가의문문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⑤ 시제는 현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과거 순이었다. 현재완료형은 전체 중 오직 2건만이 나타났다.

⑥ 진술문의 유형별 부가의문문의 분포는 평서문이 월등히 많았고 감탄문과 보문은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⑦ 부가문의 주어는 주로 2인칭과 3인칭에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You, It을 주어로 한 형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⑧ 학년별로 나타난 부가의문문 사용빈도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순이었으며 교과서 종류에 따라서도 빈도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⑨ 그 외 부가의문문이 제시된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발음이나 억양, 연음학습에 자주 제시 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는 부가의문문의 아주 부분적인 부분에 관한 학습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예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가의문문을 가르치게 될 예비교사들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는 어느정도 일까? 따

라서 다음 장에서는 예비교사들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설문을 통해서 파악해 볼 것이다.



제 4장 부가의문문 이해도 분석

본 장에서는 부가의문문 구조를 문장의 구성요소인 주어의 인칭과 수, 주어의 성, 동사의 종류, 문장의 종류로서 명령문 감탄문 보문에 따라 나누어 보고 다양한 부가의문문의 구조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이해 정도를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2008년 12월 초 현재 부산에 소재한 한 국립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교사 41명에게 부가의문문에 관한 20분간 설문지의 문항들에 대해 답하게 한 뒤 그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자가 사용한 설문지는 Langendoen(1970)이 부가의문문 조사를 위해 미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존의 Langendoen의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령문, 감탄문, 보문에 대한 부가의문문의 문항이 추가되었다.

4.1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의문문 이해에 관한 설문조사>

1. 부가의문문에 대한 의견은?

- ① 중요하다 ② 보통이다 ③ 중요하지 않다 ④ 모르겠다

2. 본인이 부가의문문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부가의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가의문문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③ 전혀 모른다.

3. 영어로 대화시 부가의문문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 ① 자주 사용한다 ② 보통이다 ③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④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다음 부가의문문에 대한 답을 고르거나 직접 적어 주세요.

1. Each of us is staying, _____?

- ① aren't we ② isn't he ③ isn't he or she

2. I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_____?

- ① don't I ② haven't I ③ have I

3. The child is crying, _____?

- ① isn't it ② isn't she ③ isn't he

4. I don't think that Dr. Spook is honest, _____?
① is he ② isn't he ③ do I ④ don't I
5. My cousin is handsome, _____?
① isn't he ② isn't it ③ isn't she
6. I have five cents in my pocket, _____?
① don't I ② haven't I
7. I am doing better, _____?
① am not I ② aint I ③ am I not ④ aren't I
8. No one watches TV any more, _____?
① does he/she ② does he ③ do they
9. One of my friends is coming, _____?
① isn't she ② isn't he ③ isn't one
10. I suppose that you are not serious, _____?
① do I ② don't you ③ are you ④ aren't you
11. Everyone likes me, _____?
① doesn't he ② don't they ③ doesn't he/she
12. Clean the room, _____?
13. I may see you tomorrow, _____?
14. Don't study too late, _____?
15. I have never been there since I was 12, _____?
16. You ought to study, _____?
17. Let's go, _____?
18. What a wonderful day, _____?

19. Either John or Sue will stay, _____?
20. Neither Sue nor John stayed, _____?
21. 다음의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서술 하세요.
- 1) Mary is pretty, is she?
 - 2) Mary is pretty, isn't she?

문항 1, 8, 11번은 부가의문문 주어의 인칭과 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Each, No one, Everyone 등을 주어로 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9와 20번은 주어의 진술문이 Either A or B와 Neither A nor B 구문으로 상관접속사가 주어인 경우 부가문에서 정확한 주어를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문항 3, 5, 9번은 주어의 성에 따른 올바른 부가문 사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여기에 제시된 진술문의 The child, My cousin, One 등과 같이 통성명사를 주어로 한다. 그리고 문항 2, 6, 7, 13, 15, 16번은 진술문에 나타난 다양한 동사들을 부가문에서 어떻게 받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의도된 문항들로 여기에는 현재완료형, be동사 am, 조동사 may, ought to 등과 같이 학교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형태와 시제의 동사를 가진 진술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항 12, 14, 17, 18번은 진술문의 종류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사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명령문, 부정 명령문, 권유문, 감탄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 4와 10번은

진술문이 보문인 문장들이다. 마지막으로 21번에서는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하여 이를 해석해보게 함으로써 동일극과 긍정극의 부가문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2 설문지 결과

부가의문문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41명 중 37%(15명)가 중요하다, 51%(21명)가 보통이다, 12%(5명)이 중요하지않다 라고 응답했다. 부가의문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부가의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34%(14명), 부가의문문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가 66%(27명)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부가의문문이 중요하다고는 인식하지만 정확한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4.2.1 주어의 인칭·수

부가문에서 주어의 수는 일반적으로 진술문의 주어의 수와 일치해야 한다. 진술문의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명사일 경우에 부가문에서는 그 명사와 수와 성이 일치하는 대명사를 써야 한다.

- (23) a. Your brother is very smart, isn't he?
 b. His students help him with the project, don't they?

<표11>은 주어의 수에 관한 부가의문문의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주어의 수에 관한 부가의문문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에서 사용된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 (24) Everyone likes me, _____?
 (25) No one watches TV any more, _____?
 (26) Each of us is staying, _____?

<표 11> 주어의 성·수에 관한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의주어 \ 진술문의주어	he / she	they (we)	he
Everyone	25 (61%)	14 (34%)	2 (5%)
No one	23 (56%)	16 (39%)	2 (5%)
Each	21 (51%)	17 (42%)	3 (7%)

위의 <표 11>에서 살펴보면 진술문의 주어가 단수로 취급된 경우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규범문법의 규칙에 따라 부가문의 주어를 단순히 단수로 받고 있다. 부정대명사 everyone, no one, each를 단수 취급하고, 주어에서 성을 확실히 단정 짓기 힘든 까닭에 많은 예비 교사들이 오답인 단수 he 혹은 she로 받은 부가의문문을 선택하

였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은 주어를 they나 we로 받은 경우인데 대화가 이루어지는 비격식(informal)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올바른 응답이다. 기존의 Langendoen의 조사 결과에도 대부분의 미국인 교사들이 부가문의 주어를 복수로 받았다고 나와 있듯이, 종래의 규범 문법 보다는 오늘날 구어에서 실제 사용되는 비격식체의 문법경향이 나타난 결과인 듯 보여진다.

4.2.2 주어의 성

부가의문문에서 부가문의 주어의 성은 일반적으로 진술문의 주어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

- (27) a. Alice likes jazz music, doesn't she?
b. Joe is very handsome, isn't he?

주어의 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통성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남성 대명사 he로 받으며 맥락상 성을 결정지어주는 어휘가 있을 때는 그 어휘에 따라 성을 결정한다. 다음의 (28), (29), (30)에서처럼 통성 명사를 주어로 가진 진술문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다양한 응답결과는 <표12>에 나타나 있다.

(28) One of my friends is coming, _____?

(29) The child is crying, _____?

(30) My cousin is handsome, _____?

〈표 12〉 주어의 성(gender)에 관한 대명사 사용분포

부가문의주어 진술문의주어	he	she	it / one
One	21 (51%)	1 (2%)	19 (46%)
The child	16 (39%)	2 (5%)	23 (56%)
My cousin	34 (83%)	2 (5%)	5 (12%)

(28)에 대한 응답자의 51%가 부가문의 주어로 남성 대명사 he를 선택했다. 이는 남성을 대표로 보는 무표(unmarked)현상이 잘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의 응답자가 one을 선택 하였는데 이는 규범 문법이 잘못 적용된 것 같다. 규범문법에서 총칭의 one은 두 번째 언급에서도 언제나 one으로 지시되는데 총칭의 one과 다수중의 하나의 개체 선택과 혼돈에서 나온 결과라 보여진다.

(29)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child가 통성 명사인데 이를 부가문에서 it으로 받은 응답자가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어의 성을 알 수 없거나 아기가 주어인 경우 it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규범문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많은 선택은 남성대명사 he를 사용한 부가문으로 39%를 차지했다. Langendoen의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미국 교사들이 he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30)은 cousin이 통성명사로 성을 구분할 수 없지만 he를 사용

한 응답자가 83%인데 반해 she를 사용한 응답자는 겨우 5%에 불과했다. 이는 문장속에서 보어로 사용된 형용사 handsome이 주로 남성에게 사용된다는 맥락에 따른 사용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상관접속사 either A or B와 neither A nor B를 주어로 사용한 문장의 부가의문문에 관한 설문 결과다.

(31) Either John or Sue will stay, _____?

(32) Neither Sue nor John stayed, _____?

〈표 13〉 상관접속사가 주어진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의주어 진술문의주어	A	B	A or B	they
Either A or B	8 (20%)	18 (43%)	4 (10%)	11 (27%)
Neither A nor B	6 (15%)	19 (46%)	5 (12%)	11 (27%)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 나 neither A nor B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 B에 따라 동사를 결정하며 부가문 역시 B에 주어를 일치시켜야 한다. 각각 43%와 46% 많은 응답자가 이 규칙을 따라 B를 주어로 선택하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결과는 A와 B를 함께 받아 복수 they를 사용한 경우로 각각 전체 응답의 27%를 차지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주어를 받는 경우와 he/she와 같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오답역시 각각 10%, 12%씩 나타나 상관접속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 예비교사들이 절반도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4.2.3 동사

부가의문문에 사용된 동사의 유형별로 설문지를 분석해 본다.

(1) Be 동사

진술문의 동사가 be동사인 경우 부가문에서는 그 be동사를 사용한다.

- (33) a. The park is beautiful, isn't it?
b. We are going swimming now, aren't we?

하지만 be동사 중에서 1인칭 am의 경우는 많은 예비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는 교과서에 전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 (34) I am doing better, _____?

현대영어의 비격식 구어체 (informal spoken)에서는 am not의 축약형 ain't와 are not의 축약형 aren't이 모두 다 사용되고 있다.

〈표 14〉 1인칭 동사유형 조사결과

부가문의동사 진술문의동사	ain't I	am not I	aren't I	am I not
am	15 (37%)	13 (32%)	10 (24%)	3 (7%)

〈표 14〉를 살펴보면 ain't가 am not의 축소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응답자인 37%가 ain't를 이용한 부가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축약을 하지 않고 am not I 를 그대로 사용한 응답자도 32%나 되었다. 하지만 aren't I 가 am I not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정확한 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The American Heritage School Dictionary(1972)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Aren't I standing for am I not... is originally a British variant. Unlike ain't, it's now fairly acceptable, especially when used in speech or informal writing.

이처럼 ain't 보다는 are not의 축약형인 aren't가 현대 미국영어의 구어체는 물론 비격식 문어체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약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미국영어에서는 ain't는 부정확하고 특히 의문문에서는 문어나 구어에서 aren't가 am not의 축약형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도 출현빈도가 전혀 없고 구어체에서의 사용 경험도 없는 탓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반영된 듯 하다.

(2) Have 동사

have 동사는 일반동사와 조동사 두 가지로 사용된다. 진술문에서 have가 일반동사를 쓰였을 경우에 부가문은 have나 조동사 do동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진술문이 현재완료나 과거완료형 have가 조동사로 쓰였을 경우에 부가문은 have를 그대로 사용 한다.

(35) I have five cents in my pocket, _____

일반동사로 사용된 have의 설문지 결과는 <표15>와 같이 나타났 다.

<표 15> 일반동사 have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의동사	don't I	haven't I
진술문의동사			
일반동사 have		34 (83%)	7 (17%)

(35)에서 have는 일반동사로 부가문에는 haven't I 와 don't I 둘 다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don't I 를 사용한 경우가 83%로 훨씬 많 이 나타났다.

다음은 have가 조동사로 사용된 경우이며 <표16>은 이에대한 설 문지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36) I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_____?

〈표 16〉 조동사 have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의동사 진술문의동사	haven't I	don't I	have I
조동사 have	35 (83%)	5 (17%)	1 (17%)

(36)의 경우는 현재완료의 have동사이므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조동사 have를 선택하였다. (35), (36)에서는 일반동사와 조동사 have의 구분사용을 파악한 질문이라 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나타난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3) 조동사 May

진술문에 may가 쓰였을 경우 부가문에서는 may 이외에 의미가 비슷한 여러 가지 조동사를 맥락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I may see you tomorrow, _____?

〈표 17〉 조동사 may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의동사 \ 진술문의동사	may I not	won't I	can't I	shall I	will I	무응답
may	16 (39%)	10 (24%)	5 (12%)	3 (7%)	1 (3%)	6 (15%)

〈표 17〉에서 나타나듯 조동사 may에 대한 부가문에는 다양한 조동사들이 사용되었다. 그 중 진술문의 may를 부가문에 사용한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인 24%가 won't I 를 사용했는데 Langendoen의 조사에서도 많은 미국 교사들이 won't I를 선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Langendoen는 위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It may be that I will see you tomorrow.'와 같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본 설문지에서는 (37)에 아예 응답하지 않은 예비교사도 15%나 되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이러한 문장을 배우거나 접한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 하였다. 이는 진술문에 사용된 조동사가 부가문에서 사용될 때 문장의 형태보다는 의미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조동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4) 조동사 Ought to

ought to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should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부가의문문의 진술문에 ought to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should를 사용하게 된다.

(38) You ought to study, _____?

표 18. 조동사 ought to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 동사 진술 문동사	oughtn 't	don't	will	mustn't	won't	should n't	무응답
ought to	12 (29%)	8 (20%)	7 (17%)	5 (12%)	3 (7%)	2 (5%)	6 (15%)

<표 18>에서 진술문에 사용된 ought to를 사용한 응답자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해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부가문이 나왔다. 하지만 정답인 shouldn't you를 사용한 응답자는 겨우 5%에 불과했으며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15%나 되었다. 이는 ought to를 사용한 부가의문문이 익숙치 않은 탓이기도 할 것이다.

4.2.4 명령문 & 권유문

명령문에서의 부가의문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요청시에 사용된다. 앞서 분석한 교과서에서는 명령문의 부가문의 형태가 100% will you로 나타났지만 긍정 명령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조동사가 사용될 수 있다.

(39) Open the window, will you?

won't you?

would you?

can you?

can't you?

could you?

couldn't you?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는 will you만 사용가능하다. 그래서 won't you는 사용되지 않는다.

(40) a. Don't be late, will you?

*b. Don't be late, won't you?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응답은 긍정명령문과 부정명령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41)은 긍정명령문이며 그 결과는 <표19>에 나타나 있다.

(41) Clean the room, _____?

〈표 19〉 긍정명령문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동사 문장의 종류	will you	don't you	won't you	aren't you
명령문	22 (54%)	10 (24%)	7 (17%)	2 (5%)

(41)에 대한 응답인 <표 19>를 살펴보면 명령문에 대한 응답은 예상했던 대로 will you 가 5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don't you의 경우는 응답자들이 clean을 평서문의 본동사로 잘못 취급한 결과로 생각된다.

(42)는 부정명령문에 관한 부가의문문 사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표20>에 나타나 있다.

(42) Don't study too late, _____ ?

〈표 20〉 부정명령문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 동사 문장의 종류	will you	do you	won't you	no reply
명령문	17 (4%)	11 (27%)	9 (22%)	4 (10%)

<표 20>을 살펴보면 부정 명령문에는 부정의 부가문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2%나 되는 응답자가 won't you로 대답하였다.

이는 긍정 명령문에 will you를 사용한다는 것에 유추해서 잘못 선택한 경우인 듯 하다.

Let's가 사용된 제안에서는 진술문의 긍정, 부정에 관계없이 shall we를 사용한다.

- (43) a. Let's go hiking, shall we?
b. Let's not watch the movie, shall we?

하지만 제안이 아니고, 허가나 요청에서는 앞서 살펴본 명령문에 서와 마찬가지로 will you, won't you, could you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다.

- (44) a. Let me see that, will you?
b. Let me know the answer, won't you?

예비 영어 교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45)와 같은 제안이나 권유에 대한 부가의문문에 대해 <표21>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 (45) Let's go, _____?

〈표 21〉 권유문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 동사 문장의 종류	shall we	won't you	don't we	aren't you
권유문	28 (68%)	6 (15%)	5 (12%)	2 (5%)

Let's를 사용한 제안에서는 shall we를 부가문으로 올바르게 대답한 응답자는 68%가 나왔다.

4.2.5 감탄문

감탄문은 거의 긍정의 진술문을 가진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 할 때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탄문일 경우에는 긍정의 진술문에 부정의 부가문을 사용한다.

(46) a.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isn't it?

b. How pretty she is, isn't she?

*c. What a nive movie it isn't, is it?

감탄문의 부가의문문은 진술문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묻기 보다는 화자가 한 말에 대한 강조의 기능을 더 가진다. 감탄문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표22〉의 결과가 나타났다.

(47) What a wonderful day, _____?

〈표 22〉 감탄문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문장의 종류 \ 부가문동사	isn't it	is it	무응답
감탄문	27 (66%)	6 (15%)	8 (19%)

〈표 22〉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인 66% 긍정의 부가문을 사용하였으나 부정의 부가문을 사용한 응답자수가 15%, 대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19%나 되었다. 감탄문의 부가문 역시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설문의 감탄문에서 it is가 생략된 것은 응답자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한 듯 하다.

4.2.6 보문절

진술문이 종속절을 가져 두 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져 있을 때 부가문은 주절에만 적용이 되고 종속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48) a. Mary believes that Jack is a student, doesn't she?

*b. Mary believes that Jack is a student, isn't he?

(49) a. Alice said Mary believes Jack is a student, didn't

she?

*b. Alice said Mary believes Jack is a student,
doesn't she?

*c. Alice said Mary believes Jack is a student, isn't
he?

(48a)와 (49a)는 부가문의 주어와 동사가 주절의 주어, 동사와 일치하므로 맞는 문장이다. 하지만 (48b), (49b), (49c)는 부가문이 종속절의 주어, 동사와 일치되었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전춘배(2002: 127)는 주절의 동사가 believe, expect, feel, intend, propose, suppose, think와 같은 전이부정(transferred negation)을 선호하는 동사들은 주절의 주어가 I 일 경우에는 부가의문문은 종속절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50) a. I suppose she is a teacher, isn't she?

*b. I suppose she is a teacher, don't I?

그러나 주절의 주어가 I가 아닌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48), (49)에서 처럼 주절과 관련시킨다.

(51) Bill supposes she is a teacher, doesn't he?

이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질문하고 있는 초점이 I suppose에 있지 않고 She is a teacher에 있기 때문이다.

(52)는 전이부정과 관련된 경우이다. 부정에는 그것이 부정하는 절 내에 있기를 기대하지만 종속절의 부정어가 주절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52) a. I don't think she will come, will she?

*b. I don't think she will come, won't she?

*c. I don't think she will come, do I?

(52a)의 진술문은 원래 I think she will not come 형태에서 부정어가 상위절로 전이된 것이며 물론 의미는 동일하다.

다음은 보문절과 부가의문문에 대한 설문과 그 결과분석이다. 상위절의 주어는 I 이며 보문절(종속절)이 부정이 된 경우인데 부정어가 상위절로 전이되지 않은 경우와 전이된 경우로 구분해 보았다. (53)은 부정어가 전이되지 않은 경우이며 <표 23>은 (53)의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53) I suppose that you are not serious,
_____?

<표 23> 주절(긍정)+보문절(부정)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 동사	are you	aren't you	don't you	do I
문장의 종류				
보문	28 (68%)	11 (27%)	2 (5%)	0 (0%)

<표 23>을 보면 응답자 중 부가의문문이 하위절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are you를 선택한 사람은 68%였고

다음 (54)는 종속절의 부정어가 전이된 경우이며 이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

(54) I don't think that Dr. Spook is honest,
 _____?

<표 24> 주절(부정)+보문절(긍정)의 부가의문문 조사결과

부가문 동사 문장의 종류	isn't he	is he	do I	don't I
보문	30 (73%)	6 (15%)	4 (10%)	1 (2%)

(54)는 종속절의 부정어 not이 상위절로 상승 또는 전이된 전이 부정이다. 올바르게 응답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전이부정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2.7 동일극

다음은 부가의문문의 동일극, 대립극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결과이다. 본 조사자는 설문에서 다음

두 문장이 가지는 의미차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해 달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부가의문 (55a)는 상승음조의 동일극이고 (55b)는 하강음조의 대립극으로 전형적인 부가의문문이다.

(55) a. Mary is pretty, is she?

b. Mary is pretty, isn't she?

조사결과 놀랍게도 많은 교사들이 동일극 부가의문문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우선 대립극인 문장 (50b)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진술문에 대한 동의나 확인의 의도로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였다고 정확히 대답하였다. 나머지 15%는 메리가 예쁘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의도로 사용했다고 답하였다.

동일극인 (55a)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왔다. 응답자의 37%가 상대의 의견을 묻는 질문의 부가의문문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확인이라는 응답은 25%가 나왔다. 화자는 메리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의도의 부가의문문이라고 해석한 응답자는 18%로 나타났다. (55a)와 (55b)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 답하지 않은 응답자가 12%, 심지어 (54a)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응답도 10%나 되었다.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예비교사들은 대체로 부가의문문을 문법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도가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부가의문문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교과

서에 주로 제시되는 일반적인 부가의문문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이나 상황에 관계 없이 오로지 규범 문법에만 충실하게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교과서에 주로 나타나지 않는 종류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제 5장 결론 및 제언

영어 교육 현장에서 부가의문문은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이나 다양한 기능들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단지 부가의문문을 만드는 구조적 관점에만 치중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도방식은 문장의 구조적인 면, 즉 문법적인 문장 형성에만 치우칠 수 있어 영어교육을 하는데 있어 영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인 언어라는 점을 그르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학교 1, 2, 3학년 영어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 내에 부가의문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서 부가의문문 지도 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부가의문문은 주로 중 1때 처음으로 학습되어 주로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학교 학년별 10종 교과서(지학사, 교학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동화사, 천재교육, 현대영어사, 디딤돌, 대한교과서, 창색, 두산)내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을 다양한 기준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기준은 극에 따른 부가의문문, 동사의 형태와 시제별 부가의문문, 진술문의 형태별 부가의문문, 주어의 인칭 형태별 부가의문문으로 분석한 결과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 대부분이 대립극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립극 부가의문문 중에서도 긍정의 서술문에 부정의 tag가 붙는 형태가 77%로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다. 전체의 9%를 차지하는 동일극 부가의문문은 그나마 모두가 명령문 형태였다. 부가의문문에

사용된 동사는 be동사 41%와 조동사 58%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조동사 중에서도 do동사가 거의 대부분이며 그 외의 조동사 may, must, ought to, should 등의 부가의문문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그 쓰임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시제는 현재시제가 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술문의 종류에 따른 부가의문문은 서술문이 91%로 월등히 많았고 감탄문과 보문은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부가문의 주어는 주로 2인칭과 3인칭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학년별로 나타난 부가의문문 사용빈도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순이었으며 교과서 종류에 따라서는 빈도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상에서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문장수는 많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의문문의 형태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모국어 화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부가의문문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다양한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어 교과서에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부가의문문의 예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예비교사들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비교사들 역시 부가의문문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으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하여 부가의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진술문의 주어가 Everyone, No one, Each인 경우 맥락에 따라 부가문의 주어는 they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예비교사는 각각 34%, 39%, 42%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또한 상관접속사가 주어인 경우 부가문에서 올바른 주어를 선택해서 쓰는 경우도 응답자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진술문에 쓰인 1인칭 be동사 am을 부가문에서 정확하게 aren't I로 받은 경우도 24%에 불과했으며 조동사 역시 의미와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기 보다는 진술문의 조동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문절의 부가의문문 경우 부정어의 전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부가문을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15%에 불과했으며 동일극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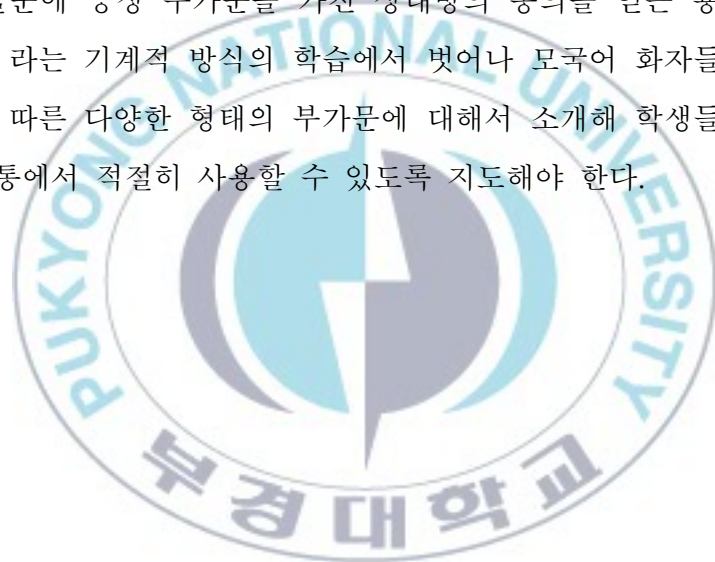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예비교사들은 주로 부가의문문을 규범 문법의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부가의문문의 의미나 기능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육의 목표가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영어교육에 가장 큰 책임을 맡게 될 예비교사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그래야만 교육현장에서 교과서에 제한된 규범문법에 따른 언어 형식에 대한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모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올바른 언어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부가의문문 지도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 스스로 부가의문문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설문에서도 보여지 듯 예비교사들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 역시 학교에서 배운 한정된 부가의문문 형태와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동일극 부가의문문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껴 그것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다양한 기능의 부가의문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쓸 수 있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부가의문문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식 시켜야 한다. 문장의 구조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담화상에서 부가의문문을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부가의문문의 다양한 형태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부가의문문을 단순히 긍정의 진술문에 부정 부가문 혹은 부정의 진술문에 긍정 부가문을 가진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용법의 문장이다 라는 기계적 방식의 학습에서 벗어나 모국어 화자들이 쓰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부가문에 대해서 소개해 학생들이 실제 의사소통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중현. 2000. 부가의문문 발화 행위에서 인식양태의 설정과 요청의 위계. 「담화와 인지」 7(2), 131-162.
- 박병수. 1974. Tag Questions 재고. 「한국영어영문학」 51, 369-382
- 송요인. 1971. D. Terence Langendoen,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한국영어영문학」 39, 119-134.
- 여도수. 1998.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5, 55-64.
- 오무백. 1986. 「영어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윤희백. 1990. 영어 부가의문문의 기능과 응답에 관한 연구. 「동아영어영문학」 6, 247-264.
- 윤희백. 1990. 영어 부가의문문의 형태와 인지확인. 「BULLETIN OF PUSAN TEACHER COLLEGE」 26(1), 345-365.
- 전춘배. 2002. 「실용대학영문법」 일오출판사.
- Cattell, R. 1972.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s. 「*Language*」 49, 612-639.
- Greenbaum, S. and R. Quirk, 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Longman.
- Greenbaum, S. and R. Quirk,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Houghton, M. 1972. *The American Heritage School Dictionary*. Boston: American Heritage Publishing Co. Inc. & Houghton Mifflin Company.

Lakoff, R. T. 1969. A Syntactic Argument for Negative Transportation, 「CLS」 5, 140–147.

Leech, G. and J. Svartvik. 2002.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3rd ed. London: Longman.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교과서 목록

- 강홍립, 임호열, 이한묵, 최동석, 허창도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대한교과서
- 강홍립, 임호열, 이한묵, 최동석, 허창도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대한교과서
- 강홍립, 임호열, 이한묵, 최동석, 허창도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대한교과서
-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김영, 윤미정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두산
-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김영, 윤미정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두산
-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김영, 윤미정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두산
- 김용진, 홍환기, 강용순, 김지탁, 정사열, 양미라, 강윤희, Daniel H. Lee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디딤돌
- 김용진, 홍환기, 강용순, 김지탁, 정사열, 양미라, 강윤희, Daniel H. Lee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디딤돌
- 김용진, 홍환기, 강용순, 김지탁, 정사열, 양미라, 강윤희, Daniel H. Lee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디딤돌
- 김임득, 이병춘, 김기호, 안성호, 한문섭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현대영어사
- 김임득, 이병춘, 김기호, 안성호, 한문섭 (2001). Middle School

- English 2, 서울: 현대영어사
- 김임득, 이병춘, 김기호, 안성호, 한문섭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현대영어사
- 김충배, 최인철, 전병쾌, 강용구, 유제분, 최현순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충배, 최인철, 전병쾌, 강용구, 유제분, 최현순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충배, 최인철, 전병쾌, 강용구, 유제분, 최현순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배두분, 박성수, 김정렬, 김준식, 이동주, Carl Dusthimer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교학사
- 배두분, 박성수, 김정렬, 김준식, 이동주, Carl Dusthimer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교학사
- 배두분, 박성수, 김정렬, 김준식, 이동주, Carl Dusthimer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교학사
- 이병민, 박기화, 한정근, 정정혜, Stephen P. van Vlack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
- 이병민, 박기화, 한정근, 정정혜, Stephen P. van Vlack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천재교육
- 이병민, 박기화, 한정근, 정정혜, Stephen P. van Vlack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육
- 이성호, 이기정, 이다미, 홍민표, 박인순, 홍영화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지학사
- 이성호, 이기정, 이다미, 홍민표, 박인순, 홍영화 (2001). Middle

- School English 2, 서울: 지학사
- 이성호, 이기정, 이다미, 홍민표, 박인순, 홍영화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지학사
- 정국진, 장경숙, 최성희, 정은예, 김혜주, Richard L. Greever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청색
- 정국진, 장경숙, 최성희, 정은예, 김혜주, Richard L. Greever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청색
- 정국진, 장경숙, 최성희, 정은예, 김혜주, Richard L. Greever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청색
- 정길정, 민찬규, 김승태, 오석진, 강금진, 황석복, Fran Eitel (2000).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동화사
- 정길정, 민찬규, 김승태, 오석진, 강금진, 황석복, Fran Eitel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동화사
- 정길정, 민찬규, 김승태, 오석진, 강금진, 황석복, Fran Eitel (2002).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동화사